

구제역 발생과 국경검역 강화

강 구 식

국립수의과학검역원
kanggs@nvrqs.go.kr



I. 들어가며

지난 1월 초 경기도 포천에서 8년 만에 국내에서 구제역이 재발 하여 우리나라 축산업계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으나, 전 국민의 피나는 노력으로 발생 81일 만인 지난 3월 23일 종식을 선언 하였었다. 그러나 지난 4월 8일 인천 강화 지역에 이어 경기 김포, 충북 충주, 충남 청양 등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검역원을 포함한 방역당국은 또 다시 비상체제에 돌입하여 구제역 방역에 총력을 다하여 6.19일 다시 청정화를 선언하였다. 잘 아시다시피 국내에서는 지난 2000년과 2002년에 구제역이 발생하여 국내축산업계에 엄청난 직간접적 피해를 끼쳤으며, 국가적인 피해액은 직접피해액만 수천억에 달했고 수출 중단 등 간접피해액을 합치면 국내 축산업의 손실은 천문학적인 피해액을 기록했다.

구제역은 외래성 질병이다. 따라서 그 동안 국내에서는 매년 구제역 국내유입방지를 위하여 3월~6월을 구제역특별검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 공항만에 대하여 검역인력 증원 배치 및 발판 소독조를 강화하여 운영해 구제역 유입을 차단하려고 노력하여 왔으나 구제역이 재발하면서 국경검역 업무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포천 구제역이 종식된 이후 취했던 주요 검역강화 활동과 앞으로 구제역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국경검역 강화조치 내용 등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II. 우리나라 주변국 정세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따르면 구제역은 2009년 34개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전세계적으로 발생 국가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나, 우리나라 주변국가인 베트남, 대만,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16개국이 발생하여 구제역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었다고 볼수 있다. 또한 지난 1월 발생한 구제역바이러스 혈청형(A형)과 4월에 발생한 혈청형(O형)이 다르게 나타나 이번 구제역이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Ⅲ. 국경검역 강화 추진 현황

그럼 지금부터 2010년 1월 포천과 4월 강화 등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강화되어 추진하고 있는 국경검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국경검역 여행객 홍보 리플렛)

1. 구제역 특별검역대책 상황실 운영

지금까지 해마다 구제역특별방역대책기간은 3월~5월(3개월) 동안 운영하여 왔으나, 구제역검역 특별대책기간은 3월~6월(4개월)까지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 구제역이 청양을 마지막으로 이동통제가 모두 해결되면서 국내방역에 대한 방역은 평시방역 체계로 환원되었지만 우리나라 주변국가인 중국, 일본, 베트남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어 국경검역은 강화된 체제로 계속 운영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지금 현재에도 검역원 본원과 지원(사무소)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휴일도 없이 공항만을 점검 및 여행객 홍보를 위하여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24시간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2. 전국 공항만 여행객 소독 강화

외국 여행을 다녀 오신분이면 우리나라 국제공항이나 항만에 들어 오실때 다른 나라 공항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것을 본 경험이 있을 것으로 안다.

PLAN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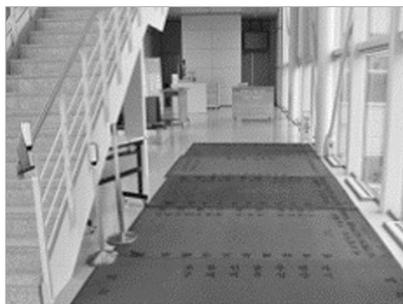
기획 II

구제역 발생과 국경검역 강화

구제역 발생 이전	구제역 발생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만 소독·검색 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국 여행객 휴대품 검색확대 및 발생농장 방문자 의류 소독 • 발판소독조(240개소 532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공항 74개소 194개(게이트당 2개) - 인천항 10개소 20개 - 평택항 6개소 1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체제 유지하되 일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만(16개소) 인력확대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77명 → (중) 94명 • 설치확대: 240개소 66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공항 74개소 349개(게이트당 5개) - 인천항 10개소 24개 - 평택항 6개소 24개

이는 1998년 대만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을 당시에는 국제공항인 김포공항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승객들이 신발에 구제역 바이러스 등을 묻혀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테인레스로 된 소독조를 만들어 설치한 것이 시초가 되어 현재의 카펫 형식의 발판소독조로 발전 설치되었다. 그 당시 대만행 비행기가 들어오는 게이트를 향해 발판소독조를 들고 뛰어다니면서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해 애쓰던 기억들이 지금도 새롭다.

또한, 구제역 발생이전에 전국 공항만에 240개소 532개를 운영하던 소독조를 666개소로 확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 검역관 인력도 77명에서 94명으로 확대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문 소독요원을 활용하여 철저한 국경검역을 추진해 오고 있다.



3. 해외 여행객 휴대축산물 검색강화

해외에서 들어오는 휴대축산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행객 스스로 악성가축전염병 유입의 위험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유입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알 수 있다. 우리원에서는 여행객들이 귀국시 휴대축산물을 유입을 하지 않도록 전국 공항만에서 매주 국경검역 홍보를 실시해 오고 있다.

여행객들에게 홍보물을 배부하고 휴대축산물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www.nvrqs.go.kr
동축산물 검역신고·문의 1588-9060



해외여행시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국내유입을 막아줍니다.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을 막기 위해서 해외여행시 국민 모두의
주의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 직물은 2008년 국경간역홍보공모전에서 수상한 이윤경님의 작품을 Re-Design한 것입니다.

해외여행시!

- 첫째, 외국 축산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 둘째, 축산물휴대시 검역관에게 신고합니다.
- 셋째, 외국 가축농장 방문을 자제합니다.
- 넷째, 외국 농장방문시 국내농장 2주간 방문을 자제합니다.

PLANNING

기획 II

구제역 발생과 국경검역 강화

구제역 발생 이전	구제역 발생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대육류 등 정밀검사 강화 ■ 국제우편물 및 특급택송화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물: 기존 주간 근무 운영, 탐지건 2두 투입 • 특송화물: 검역물 통보시 출장 검역 ■ 검역탐지건 운영(14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공항, 김해공항 및 제주공항 등에서 17개국 35노선 집중 투입 • (추가) • 인천공항 국제우편물 상시투입 (2두) ■ 조사료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구제역 발생국산 건초는 상대국에서 소독, 국내 도착 후 재소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수입 건별 구제역 검사 • 현물검사는 컨테이너 조사료(2~5Bale) 및 톤백 조사료(2Bale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대육류 등 정밀검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밀검사 품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대육류 정밀검사 비율확대 (250건 → 300건) ⇒ 중국산 등 톱밥, 코코넛껍질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계획 55건) ■ 국제우편물 및 특급택송화물 관리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물: 24시간 근무유지(야간 1명), 탐지건 2두 투입 • 특송화물: 탐지건 1두(주 3회), 검역물 확인시 홍보물 동봉 ■ 검역탐지건 투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개국 38개 노선 주 239편 • 최근 구제역이 발생한 중국 북경·광저우·심천·우루무치 전면에 탐지건 투입 • 특송화물에 탐지건(1두) 추가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구제역 발생에 따라 3개노선 6편에 대하여 검역탐지건 투입 ■ 현물(해체)검사 비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유지 • 현물검사 비율 2배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Bale → 4~10 이상

또한 인천, 김해, 제주공항에는 검역탐지건을 투입을 확대 편성하여 구제역 발생국인 중국의 북경 노선 및 일본후쿠오카 노선에 대하여 검역탐지건을 전량 투입하여 여행객들이 휴대하고 불법으로 반입하는 축산물을 검색하여 구제역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검역탐지건은 2001년 말 처음 도입되어 현재 14두를 운영하고 있으며, 휴대축산물에 대한 탐색비율이 전체의 30%에 육박할 정도로 가시적인 효과가 뛰어나 일본에서도 우리 탐지건을 벤치마킹해서 운영 중에 있다. 이렇게 여행객들이 휴대하여 반입되는 축산물에 대해서도 구제역 바이러스 정밀검사 비율을 연간 250건에서 300건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산 톱밥, 코코넛 껍질에 대해서도 55건의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휴대축산물을 통한 구제역 바이러스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또한 국제우편물류센터는 구제역 발생 이전 주간근무에서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송화물에 대해서도 탐지건 1두를 순환 투입하여 반입되는 축산물의 검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구제역 발생국산 수입조사료에 대해서는 상대국에서 소독 후 국내에 도착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수입시 전량 구제역 바이러스검사를 실시하고 현물검사비율을 2~5묶음에서 4~10묶음으로 확대 실시하여 구제역 유입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 검역탐지견 운영 〉

4. 외국인 노동자 및 축산인 관리 강화

구제역 발생 이전	구제역 발생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근로자 관리 및 홍보 강화 ■ 축산인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신고서에 신고토록 조치 • 축산단체 여행시 홍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3월말) 63회 3,69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근로자 관리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국전 : 국경검역 교육 • 입국시 : 휴대품전수검사, 집합교육 • 입국후 : 교육기관에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근로자 교육 실적(2010년 3월말) : 76회 1,155명 ■ 축산인 신고·소독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와 입국예정정보 공유로 입국과정시 반드시 신고·소독 • 축산인(67천명) 검역홍보 문자메시지(SMS) 발송(월 2회) • 농촌단체 여행객이 입국시 신고토록 여행사 등에 홍보 • 소독장비 보강 : 총 114대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 소독기 42대, 신발 소독기 138대, 의복(자외선) 소독기 30대 - 축산인 여행객 전신소독기(Air shower기 4대 설치)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가장 강화된 국경검역 대책의 하나로 외국인 근로자 및 축산업 종사자 해외 여행객에 대한 관리 강화를 들 수 있겠다. 외국인 근로자는 구제역이 발생하면 언제나 유입 원인중의 하나로 지목을 받아왔다.

따라서 우리원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출국전 상대국 교육기관에서 국경검역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이후에 국내에 파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국내에 입국 시에는 공항만에서 휴대품 전수검사와 교육을 받은 후 입국 후에는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여 교육을 이수 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이번 인천 강화지역 구제역 발생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는 해외여행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입국예정정보를 공유하여 입국 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신고하고 소독 후 소독증명서

를 발급 받은 후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전국 공항만에 대하여 손 소독기, 신발 소독기 및 의복과 수화물을 소독할 수 있는 자외선 소독기 110대를 설치하여 해외여행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국제공항인 인천, 김해, 제주공항에 대해서는 전신소독을 할 수 있는 에어샤워기를 설치하고 홍보요원 35명을 배치하여 여행객들을 안내하고 있으며 구제역 발생국가를 여행한 축산인에 대하여 전신을 소독하고 나갈 수 있게 조치하고 있다.



〈특송업체 등 자외선 소독기〉

5. 유관기관 업무 협조 강화

구제역 발생 이전	구제역 발생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만 현지점검 ■ CIQ기관 등과의 업무협조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만 현지 점검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부진 중심의 점검반 편성 • 월 1회 이상 점검빈도 강화 ■ 공항만 발전협의회 협조 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활성화 추진

구제역 바이러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검역원과 공항만에서 근무하는 유관기관과의 협력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휴대축산물에 대한 검역을 세관과의 업무 협조로 X-ray를 통하여 검색하고 있으며, 공항만으로 밀반입되는 동축산물에 대해서도 세관과 공조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남은 음식물의 위생적인 처리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구제역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 간부진 공항만 점검 〉

〈 유관기관 협력-세관 X-ray실 〉

IV. 맺음말

금년 구제역 발생으로 국내 축산업계는 또 한번의 큰 시련을 겪었다. 다행이 인근 일본에 비해 조기에 종식은 되었지만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국들이 점차 국제역 상재국화 되어가고 있고, 외국과의 인적 물적 교류도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구제역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하기는 어렵다. 진인사 대천명의 심정으로 축산인, 국민 모두가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축산농가는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구제역 발생국 여행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구제역 발생국을 방문할 경우 입국시 전국 공항만에 검역기관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하여 소독을 받고, 귀국 후 5일이 지난 이후에 농장을 출입하여야 한다.

또한 구제역 발생국 여행 시에는 가축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국내로 쇠고기, 돼지고기와 축산물을 가져오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

구제역 유입차단을 위해서는 국경검역 책임자, 축산농가, 국민 모두의 총체적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구제역의 재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경검역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검역원에서는 앞으로 여행객 홍보, 유관기관 협력, 철저한 여행객 소독 등을 통하여 구제역 바이러스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